##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 36. 뮈르달(Myrdal) 에서 다시 베르겐으로

오후 3시 30분. 플람스바나 열차가 '노르웨이 요약'의 마지막 일정인 위르달에 도착했다. 위르달은 오슬로—베르겐 구간 사이에 열차를 갈아타는 곳이고, '노르웨이 요약' 관광을하는 사람들이 베르겐으로부터 와서플람으로 가기 위해 플람스바나 열차에 올라타거나 반대로 우리처럼 플람으로부터 와서 베르겐으로 돌아가기



위해 플람스바나 열차에서 내리는 정거장이다. 주위에는 아무 것도 없고 해발 867 미터 험한 산골에 오직 기차역만 존재하는 마을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르겐으로 돌아가는 기차로 갈아탄다.

뮈르달역으로 서서히 들어와 멈춘 플람스바나 열차에서 내렸을 때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이미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 있었다. 열차에서 내려 초록빛 플람스바나 열차를 다 시 한 번 뒤돌아 보았다. 불 켜진 창으로 주황색 내부가 환 하게 보였다. 백 년 전 노르웨이 사람들이 산을 깎고 터널을 뚫어 철로를 놓은 길 위로 우리를 실어다 준 그 정다운 산 악 열차에 작별 인사를 하며 꼭 한 번 더 돌아오겠다고 마 음 먹었다.

베르겐행 기차는 오후 3시 42분에 떠난다고 전광 안내판이 알려 주고 있었다. 12분 후에 떠난다. 베르겐행 기차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눈이 녹아 질척이는 플랫폼에 서서 잠깐 기다렸다. '노르웨이 요약' 동안 기차와 버스, 페리호까지 골고루 타보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교통편이분 단위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이 매우신기했다. 오후 3시 42분에 떠난다고 하면 41분도 아니고 43분도 아닌 딱 42분에 출발했다. 그래서 춥고 지쳤지만 몇분이내에 기차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베르겐행 기차가 들어 왔다. 지친 관광객들이 반가운 듯

서둘러 올라탄다. 기차에 올라타니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관광이었지만 마치 멀고 먼 나라를 돌아온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하루 였다. 나는 좌석에 몸을 푹 파묻고 밖을 내다 보았다. 어둠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정확히 3시 42분에 출발했다.

25마일로 달리던 플람스바나와 달리 베르겐으로 향하는 기차는 속력을 내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창으로 내다보니 기차역 밑으로 조그맣게 집들이 보였다.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누가 사는 집들일까? 희다 못해 푸르게 보이는 풍경 속으로 뮈르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흑백 사진 같은 산천이 지나간다. 앙상한 나무들이 눈밭에 서 있는데 그 뒤로 또 산들이 보이고 그 산 너머 또 산이 계속 지나간다. 기차 속도가 빨라져 노르웨이의 설경은 휙휙 지나 갔고 얼마 있지 않아 날은 깜깜해지고 말았다.

밖이 안 보이니 이제 정말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것밖에는 할일이 없어졌다. 핸드폰마저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지고 말 았다. 좌석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아 본다. 하루 종일 잘 버 틴 무릎이 이젠 정말 안되겠는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다 리를 죽 펴고 무릎을 달래 본다. '노르웨이 요약'을 무시히 마쳤으니 정말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나의 충실한 친구야.

12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하루였는데 마치 기나 긴 세월을 지난 것만 같았다. 감히 노르웨이를 다 보았다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그래도 노르웨이의 자연이 어떤 모습인지, 특히 겨울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 험준하나 따스하게 느껴지는 산천, 그리고 가도가도 끝나지 않는 눈과 얼음. 내일 R하고 통화하면 다 얘기 해 주어야지. '엄마, 노르웨이 어땠어?' 하고 물으면 말해 주리라. '응, 그냥 그대로 겨울왕국이야!'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디시뇨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